2023년 / 2월 4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2월 23일(목) 15시 : 사무국 회의

○ 2월 24일(금) 18시 : 2023년 정기 이사회

■ 연구원 소식

○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우리 연구원이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로 승인되었습니다. 2022년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 연만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시작일: 2023년1월16일(월)부터
- 기부금합산기간: 2022.01.01.~2022.12.31.

영수증 발급과 관련 수기 영수증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연구원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해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이나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전해드립니다.

■ 역사속의 오늘

일흔 여섯 명의 이방인 - 1954. 02. 21

<광장>이라는 제목으로 월간『새벽』1960년 11월호에 발표된 최인훈의 소설은 한국전쟁 이후 중립국을 택해 떠난 76인의 포로에서 출발한다. 많은 이들은 소설을 통해 이들이 남과 북이 아닌 중립국 인도를 택했고 인도로 가는 '타고르 호' 배 위에서 바다에 몸을 던진 이명준의 이름으로 이들을 기억한다. 소설은 전쟁 당사국이 아닌 중립국을 선택한 포로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 치하에선 발표될 수 없었고 4·19혁명 덕분에 발표가 가능했다.

한국전쟁 중 발생한 수십만의 포로 가운데 남도 북도 또는 중국도 대만도 아닌 중립국을 택한 것은 총 88명이었다. 그 가운데 열 두 명의 중국 사람을 제외한 '진짜 코리안' 들은 76명이었다. 76명 중 상당수가 '미국'을 희망했지만 미국은 참전국으로 중립국이 아니었다. 그들을 일시적으로나마 수용한 나라가 인도였다. 그러나 인도로 가는 배에 올라서도 분단과 대립의 공포는 선명하게 살아 있었다. 중립국행이라는 목표 아래에서는 하나였던 76인의 포로들도 인도파와 남미파로 갈라진 것이다. 당시 신생독립국이었던 인도는 친사회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고 남미에 가기를 희망한 포로들은 인도를 선택하겠다는 포로들을 "빨갱이"로 봤다. 그 두 집단은 서로 1백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않는 식으로 배 안에서의 분단 체제를 만들었다. 중립국을 택하겠다고 고향을 버린 사람들끼리 또 그렇게 갈라졌던 것이다.

그 분단(?)이 끝난 것은 1954년 2월 21일이었다. 인천항을 떠난 지 열이틀만에 인도 마드라스 항에 도착한 것이다. '인도파'들은 즉시 인도 남부로 보내져 기술 교육 등을 받았지만 나머지 남미파들은 또 한 번의 기나긴 기다림을 겪어야 했다. 인도정부는 이들에게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인도에 정착할 것을 종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으로 갈 수는 없었고 카스트 제도 엄존한 인도에서 '최하층 계급'이 된다고 생각한 이들은 인도 정부에 중립국으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며 맞선다. 그 와중에 몇 명은 북한으로 돌아갔고 이것을 안 이승만 정부는 발끈한다. 당장 포로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이었다. 얼마 후 남미 국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이들을 받아들였지만 포로들을 귀환시키려는 남측의 노력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또 몇 명은 남한으로 귀환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포로들은 인도나 남미에 정착하여 지난한 삶을 이어가게 된다. 그들의 행적을 보면 기구함의 극치를 달린다. 정착에 성공하여 일가를 이룬 이도 있으나 경제적으로 파산하거나 정신질환 등 질병을 얻어 빈민굴에서 스러져간 사람도 있었다.

당시 76인의 반공포로 가운데 인민군 소좌출신이던 주영복씨에 관한 이야기는 그 기구함에 엄숙해지기까지 한다. 고려대 양성철 석좌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평생 여덟개 나라의 국가(國歌)를 불러야만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어린 시절이었던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국가(國歌)를 불러야했고, 해방이후 38선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에게 소련국가를 배웠으며 북에 인민공화국이 들어선 후 응당 북한국가를 불러야했다. 한국전쟁 중 중공군 참전으로 중국국가도 불렀고, 유엔군의 포로가 되어 거제도 수용소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 애국가를 불렀다. 전쟁이 끝나고 석방된 이후 인도에 가서는 인도국가를 따라해야했고 브라질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한 후 브라질 국가를 미리 배워 그 노래를 합창하며 브라질에 발을 디뎠고 이후 미국에 정착한 뒤 그는 <성조기여 영원하라>를 듣고 부르며 기립했다. 한국 현대사의 격류와 곡류가 사방에 흩뿌려 놓은 비극은 참으로 많다. 1954년 2월 21일 76인의 한국인이 생판 모르는 미지의 땅 인도에 도착했다.

경제난 속에서 북의 강화된 선군정치와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의 와중에 군사적 대결을 외치는 이들에게 76인의 삶이 보여준 역사의 무게는 무엇일까?